

古蜀文化 青銅縱目人面像의 눈과 시선의 含義 小考*

朴錫弘**

◁ 목 차 ▷

- I. 緒言
 - II. 문자 중의 ‘눈’
 - III. 눈의 誇張
 - IV. 시선의 표현 방식
 - V. 시선의 지향 대상
 - VI. 青銅縱目人面像의 눈과 시선
 - VII. 餘論 : 고대한자 연구 중 문화인류학 자료 운용의 전제조건
-

I. 緒言

中國 四川省 廣漢市の 三星堆 古蜀文化 유적의 유물은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타 문화유적에서의 유물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과 기이한 형태로 고고·역사·문화 등 관련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곳에서 발굴된 青銅縱目人面像(이하 ‘종목상’)은 함께 발견된 다른 청동인면상과는 상이하게 눈동자가 원통형으로 앞으로 길게 돌출된 ‘縱目’(이하 ‘종목’)의¹⁾ 형태여서, 기존의 商代文化 유물이나 族徽와 같은 그림문자, 심지어는 문자적 보수성을 가지는 金文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목상은 고족문화 특유의 문화와 정신세계가 반영된 기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련 학계에서는 고족문화 출토 유물 중에서 보

* 이 논문은 2010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 사업에 의해 작성되었음.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눈동자의 돌출을 ‘突目’·‘直目’·‘柱目’·‘凸目’ 등 여러 형태로 칭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학계의 일반적 정의인 ‘縱目’을 따르기로 한다.

이는 상대문화 간의 일부 유사성이나 卜辭 및 先秦 문헌상의 '蜀'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 고촉문화를 중원문화의 일부 혹은 아류의 문화로 간주하여(黃劍華 2001, 郭勝強 2004, 向桃初 2005 등) 고촉문화의 발생과 발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한 점은 중국 고문자 연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 종목상이 甲骨文 '直'·'聖'·'蜀'·'叟' 등의 造字本義상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는 논지의 연구나(周清泉 2003a·b, 黃永林 2004 등), 상대문자로써 고촉문화 지역에서 발견된 각종 부호들을 해석하는 것(何晴 2001)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류의 연구가 비록 문화학 또는 비교문자학 연구방법을 운용함으로써 고대한자 연구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의 문자를 단순히 삼성퇴 유물과 연관 짓거나 기계적 비교 분석에만 그치고 있어, 해당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고대한자 연구의 신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증자료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종목상의 종목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눈·視線과 관련한 갑골문·금문·東巴文 등의 각종 문자자료, 그리고 고대 및 현대 세계 각지의 실물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문자학 및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²⁾ 운용하여 종목의 함의를 분석해보고 종목상에 반영된 고촉문화의 독특한 문화 요소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대한자 연구에 있어 고고 및 문화인류학 자료의 객관적·과학적 운용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자료가 고대한자 연구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문자 중의 '눈'

눈은 '보다'라는 행위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인간의 감각기관이다. 따라서 인류는 문명사 전 과정을 통해 눈을 자연계의 객관 사물과 세계를 인식하는 감각기관 중 최우선시 하였다. 가령, 불교적 인식론에서 눈을 가장 맨 앞에서 언급하고 있거나³⁾, 先秦 문헌에서 눈과 관련한 '보다'라는 행위가 다른 인지 동작

2) 拙稿(2008) 참조.

3) 불교에서는 객관 사물의 인식에 작용하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眼·耳·鼻·舌·身·意 등 '六根'으로 통칭하며, 이것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을 각각 色·聲·香·味·觸·法이라 하고 이를 '六境'이라 한다.

보다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⁴⁾, 그리고 五感 중에 시각을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나열하는 것도 바로 인간의 인식 행위에서 차지하는 눈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 예라 할 수 있다.

눈에 있어 눈동자는 인간의 시각기관의 핵심으로서, 고대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商代 사람들은 갑골문에서 ‘目’·‘相’ 등을 ‘𠄎’ (前4·32·6)·‘𠄎’와 같이 눈동자 지점에 점 혹은 短劃을 부가하여 눈의 핵심적 부위를 표시하였다.⁵⁾ 또한 ‘𠄎’·‘民’·‘𠄎’ 등과 같이 ‘눈에 危害를 가하다’라는 의미자질을 가지는 문자들은 갑골문 ‘𠄎’ (後下27·2)·‘𠄎’ (乙118)·‘𠄎’ (京津2809) 등과 같이 모두 눈동자를 나타낸 지점에 손이나 위해도구로써 가격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 것 역시 눈에 있어서 시각과 관련한 핵심 부위가 바로 눈동자란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 문자적 증거인 것이다.

앞의 사실은 表意성을 띠는 다른 문자들에서도 발견된다. 가령 納西族의 동파문에서는⁶⁾ ‘눈’을 나타내기 위하여 ‘𠄎’·‘𠄎’와 같이 타원형 내부나 ‘U’자형 안쪽에 눈동자를 나타내는 점이나 짧은 세로획을 추가하였다. 이들 문자들은 ‘𠄎’ 또는 ‘𠄎’과 같이 ‘눈이 멀다’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들에서 점이나 단획을 생략함으로써 시각능력이 없는 눈, 즉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 사물을 인지할 수 없는 눈 또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볼 수 있는 눈을 나타내는 앞의 문자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눈동자를 형상화 한 지점에 부가된 점이나 짧은 세로획은 눈동자 그 자체를 나타내는 부호일 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과 그렇지 못한 눈의 차이를 나타내는 구별부호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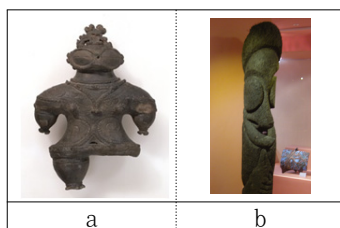
4) 《論語·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5) 눈에서의 이 점이나 짧은 세로획을 장식부호로 보는 설이 다수 있지만, 고대한자에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점·획의 의도성이나 목적성에 대해서도 향후 심도 있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 동파문 字形 출처는 周斌(2005).

Ⅲ. 눈의 誇張

앞 장에서는 고대인들이 일반적인 '눈'을 어떻게 형상화 하였는지를 문자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뛰어난 시각 능력 또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를 나타낼 경우에 고대인들은 어떠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을까? 고대인들은 특정 존재의 초인적 시각능력을 표현할 경우에는 독특한 표현기법을 운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기법이 바로 誇張이다.⁷⁾ 눈의 과장은 주로 눈 크기의 과장, 안구의 돌출, 눈의 개수의 증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류의 각종 조형물과 회화 등을 통해 관련 예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음의 그림을 살펴보자.



[F1] 눈의 크기를 과장한 조형물⁸⁾

[F1]a와 b는 다른 신체기관에 비해 특히 눈의 크기가 과장된 예이다. 이 중 [F1]a는 일본 繩文시대 遮光器 土偶인데, 이것이 어떤 존재를 나타낸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왕관 모양의 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대적 존재를 상징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F1]a의 눈이 과장된 것은 바로 절대적 존재의 시각적 특수 능력을 눈의 크기의 과장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인들의 이러한 표현기법은 현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F1]b가 그 예이다. 이것은 '나망게'라고 일컫는 바누아투의⁹⁾ 부락 추장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여기에서도 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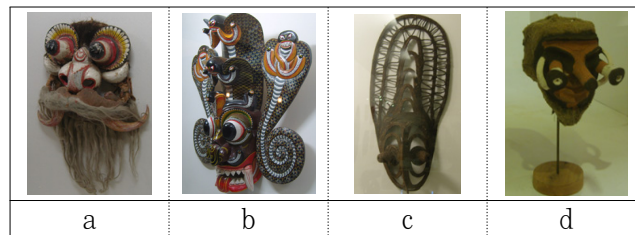
7) 이러한 과장은 해당 조형물의 목적성에 따라 과장의 부위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종족 보전이나 생산력 증대를 위한 多産이 목적이라면 생식이나 양육과 관련한 신체기관이 과장되어 표현된다.

8) 사진출처 www.emuseum.jp(좌), 하회세계탈박물관(우, 직접 촬영).

9)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바누아투 공화국(Republic of Vanuatu)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멜라네시아 계열의 민족이다.

다른 부위에 비해 그 크기가 과장되어 있다. 이 역시 부족의 대표가 부족의 수호, 절대적 존재와의 소통 등, 부족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각적 특수 능력의 소유자임을 상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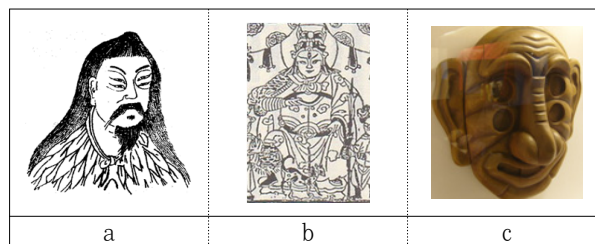
눈의 과장은 또한 아래 [F2]처럼 안구를 돌출시키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F2] 돌출된 안구를 가진 세계 각 지역의 가면¹⁰⁾

[F2]a는 스리랑카의 마하코라(Mahakola)로서 질병 치료를 위해 주술사가 굿을 할 때 쓰는 가면이고, [F2]b은 스리랑카의 나가락사(Naga Raksha)로 대지와 물의 정령을 상징한다(하회세계탈박물관2011). 이밖에도 [F2]c·d는 각각 파푸아뉴기니와 아프리카의 가면이다. 이들 가면들에서 안구 돌출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존재들이 모두 인간의 생명과 생산 활동 등과 관련한 종교적 행위와 관련한 것인 만큼, 이들의 돌출된 눈은 궁극적으로 사회집단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눈의 과장은 눈의 개수를 증가하는 방식을 운용하기도 한다.



[F3] 여러 개의 눈을 가진 존재

10) 사진출처 하회세계탈박물관(직접 촬영).

앞의 [F3]a는 倉頡의 상상도인데, 漢字를 창제하면서 그가 발휘한 뛰어난 관찰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창힐을 신격화 한 후대인들이 그를 네 개의 눈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켰다. 또한 [F3]b는 중국 四川 지역 민간신앙 중에 농업과 水利를 관장하는 二郎神으로¹¹⁾ 그의 통찰력을 숭배하는 현지 고대인들에 의해 눈의 수가 세 개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¹²⁾ 그리고 [F3]c는 고대 중국에서 성행하여 新羅·高麗와 日本에까지 전파된 方相氏인데¹³⁾, 儼禮 의식에서 잡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楊冬連 2010) 초능력을 소유한 존재로서 눈의 수가 네 개로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특히 황금의 눈을¹⁴⁾ 소유한 존재로 나타냄으로써 그의 비범한 시각능력의 표현을 더욱 극대화 하였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해당 집단을 통솔하는 절대 권력자 또는 神性(divinity)을 가진 전지전능의 절대적 존재가 시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대한 과장의 표현기법을 통해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존재들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혹은 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해당 사회 성원들에게 생활의 풍요와 안정, 나아가 해당 사회집단의 항구적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해주기를 바라는 사회 구성원의 집체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IV. 시선의 표현 방식

눈이 신체기관 중 감각기관의 하나라면, 視線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보다'라는 인간의 행위의 시작과 종착지까지의 전 과정들을 선(line)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선을 사전적으로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으로 풀이한 것도¹⁵⁾ 시선의 이러한 의미를 적절히 잘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11) 秦 孝文王 시기에 蜀郡의 太守를 지낸 李冰의 치수 공적이 높이 기려지면서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 의해 신격화 된 존재라는 설이 일반적이다(碧蓮 2011). 후대로 오면서 여러 시기 및 지역별로 여러 형태의 존재로 변화되었다(胡小偉 2003).

12) 힌두교의 시바(Shiva)신이 세 개의 눈을 가진 것이나, 불교에서의 觀音菩薩이 千手千眼으로 구현되는 것도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13) 이로써 방상시는 韓·中·日 3국의 공통적 문화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4) “方相氏掌蒙熊皮，黃金四目，玄衣朱裳，執戈揚盾，帥百隸而時難，以索室驅疫。”(《周禮·夏官·方相氏》)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www.korean.go.kr).

그런데, '시선'이라는 合成語에서의 형태소 '線'은 실제적으로는 가시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이러한 시선을 어떤 방식으로 가시화 하였을까? 아래에서는 고대인들이 어떻게 '눈이 가는 길' 과 '눈의 방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었는지 문자 및 실물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눈이 가는 길'의 표현

'보다'라는 행위는 인간의 적극적 행위이다. 따라서 신체기관의 일종으로서의 눈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눈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 방식의 고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조형물보다 무형의 사물을 구현하기 용이한 문자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동과문에서 '눈'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와 '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자를 비교해보면, 눈동자를 나타낸 점이나 짧은 세로획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즉, '보다'란 의미의 문자의 세로획이 '눈'을 나타내는 문자 중의 세로획보다 길다. 가령, '보다'란 의미의 동과문 '𠄎'·'𠄏'와 '눈'이란 의미의 '𠄑'에서 눈동자를 나타내는 두 세로획의 길이가 긴 것은 바로 '보다'란 의미의 문자이다. 이것은 곧 '보다'라는 적극적 감각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눈'을 나타내었던 단획을 아래로 더욱 길게 연장시켜 '눈이 가는 길'을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동과문에서의 '읽다'는 '𠄒'·'𠄓'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선이 아래의 '𠄒'를 향하고 있는데, 이는 눈으로 보는 대상이 바로 '𠄒'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대상(읽을거리)으로 향하는 '눈이 가는 길'을 세로획으로 가시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동일 계열의 문자 중 단순히 '눈'의 의미만 나타내는 '𠄑'·'𠄒'에서는 '눈이 가는 길'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것이나, '𠄒'·'𠄓' 등과 같이 '읽다'라는 의미의 동과문이 앞에서와 같은 세로획이 아니라 곡선으로 표현된 것 등과 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밖에도 갑골문에서 단순히 '눈'만 나타낸 문자 '目'과 시선을 함께 나타낸 '直'이 각각 '𠄒'(鐵16·1)·'𠄓'(乙6390)인 것은 바로 '눈이 가는 길', 즉 '시선'이라는 의미자질을 나타내기 위한 필획 유무의 차이인 것이다.

앞의 여러 문자 예들을 통해 볼 때, 상당수의 문자들이 시선을 가시적으로 나타

내기 위해, ‘눈’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문자들과는 달리 직선 형태의 短劃과 같은 특정의 부호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눈의 방향’의 표현

여기에서의 ‘눈의 방향’이란 ‘시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환언할 수 있겠는데, 문자에서는 ‘눈’을 의미하는 기존의 문자를 변형하여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예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갑골문·금문 ‘臣’이 ‘𠄎’(前4·27·3)·‘𠄎’(臣辰父癸鼎) 등의 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문자는 시력의 핵심인 눈동자가 향하는 방향, 즉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위쪽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원래의 문자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운용하였다. 이로써 ‘臣’은 상급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올려다봄으로써, 이 문자의 주체가 적어도 계급적 공간 개념상 그 위치 관계가 상대적으로 하급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見’의 갑골문·금문이 ‘見’(後下11)·‘見’(匱侯鼎)과 같이 눈의 방향이나 시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눈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세계의 각종 조형물을 통해서도 관련 예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다음의 유물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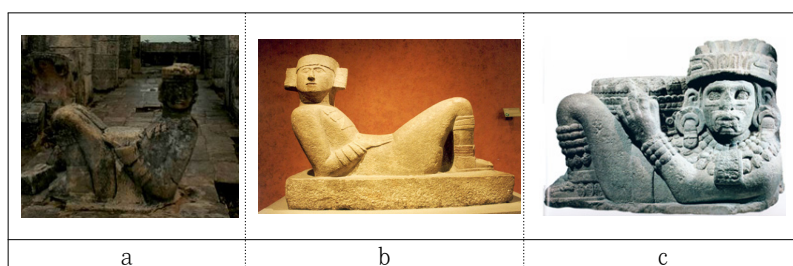
[F4] 아스텍의 조형물¹⁶⁾

위 [F4]의 조형물들은 모두 다양한 형태의 눈으로써 ‘눈의 방향’이 특정의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중 [F4]a는 아스텍(Aztec)의 틀리졸테오틀(Tlazolteotl)을 형상화한 조형물이다. 틀리졸테오틀은 아스텍의 신화에서 색욕·방탕함과 관련

16) 사진출처 www.latinamericanstudies.org

이 되는 女神으로서(Taube 1998: 70), 흔히 不淨의 女神으로 불린다. 또한 [F4]b는 아스텍 신화에서 꽃·봄·사랑을 관장하는 神인 소치필리(Xochipilli)이다(Longhena 2004: 213). ‘소치필리’란 나와틀(Nahuatl)어로¹⁷⁾ ‘꽃의 왕자’라는 뜻으로서, 양다리를 교차하고 왕좌에 앉은 젊은이로 표현되어 있다(Longhena 2004: 213).

위 [F3]의 a·b의 시선은 모두 멀리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갈망하는 절대적 존재 혹은 초인적 존재의 표정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F3]b는 왕좌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백성을 굽어보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선의 방향에 특정의 의미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5] 마야의 조형물¹⁸⁾

위 [F5]는 마야의 피라미드형 신전 위에 설치되었던 橫臥像인 차크몰(chacmool)이다. 차크몰은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¹⁹⁾ 이 조형물은 조형의 목적성이 [F4]보다 명확한데, 즉 이것은 祭天 의식 시에 배 위의 容器 모양의 지점에 사람의 심장을 올려놓는 人牲(human sacrifice) 供犧의 용도로 사용되었다.²⁰⁾

17) 아스텍의 언어인 나와틀어는 멕시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메리카의 토착어 중 하나이다.

18) 사진출처 www.maya-aztec.com(좌), www.latinamericanstudies.org(우).

19) 마야 신화에서의 비의 신 차크(Chac)와 구별되지만, [F5]의 b와 같이 차크몰이 비의 신의 의상을 입은 신의 모습도 존재하므로 차크몰 역시 비의 신으로 추정하기도 한다(Domenici 2007: 179).

20)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차크몰이 다양한 공물을 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Longhena 2004: 185).

또한 이것은 지향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분명한 점이 있다. 즉 제천을 위한 목적성에 비추어볼 때, 차크물의 시선은 해당 사회집단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시선의 지향 대상

[F4]·[F5]의 존재 모두가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눈의 방향'은 이들의 존재적 특성 및 해당 사회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의 트라졸테오티·소치필리·차크물의 시선이 지향하는 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논하자면 이들의 시선은 모두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두 해당 사회집단의 생산·번영·존망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을 살펴보자면, 먼저 소치필리는 몸에 갖가지 식물 문양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곧 그가 식물의 신이라는 신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Domenici 2007: 192). 식물은 곧 대지의 비옥함과 충분한 강수를 필요로 하므로, 그의 신성은 식물의 소생과 성장에 필수적 조건의 확보를 위한 절대자와의 교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소치필리는 또한 옥수수의 신으로 여기기도 하였는데, 식물의 신이 옥수수를 관장한다는 것은 그가 아스텍 사람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트라졸테오티 역시 옥수수와 관련이 있는 존재이다. 그는 오물·부정을 상징하는 여신이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옥수수의 신을 출산한 존재이다.²¹⁾ 또한 그는 人糞을 먹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²²⁾ 세계 기타 지역의 여러 신화의 예를 통해 볼 때 인분과 관련한 신은 농업 생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²³⁾, 이를 통해 볼

21) 앞의 [F4]a는 아스텍 전통의 출산 자세인 쪼그린 자세로(Davis 2008: 590) 옥수수의 신을 출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2) 트라졸테오티의 또 다른 이름인 트라엘카니(Tlaelquani)는 '배설물을 먹는 자'를 의미한다(Taube 1998: 70).

23) 고대 모아브인은 인분의 신인 '벨페고르(Belphegor)'를 숭배하였고, 유대인 신화에는 인분의 신인 '벨제불'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인분과 관련한 신이 존재하였던 것은 인분이 거름으로 사용되어 농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Horan 1997: 61)

때 틀라졸테오틀 역시 농업생산과 비교적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추정된다. 앞서와 같이, 틀라졸테오틀과 소치필리는 모두 해당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옥수수 등의 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중앙아메리카에서 옥수수가 유일한 농작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Henderson 1999: 273), 옥수수는 당시 해당 지역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한 주요 농작물로 재배되고 있었다. 따라서 옥수수를 관장하는 신은 해당 사회집단의 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결국 틀라졸테오틀·소치필리는 마야문명 중의 農神이라는 신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형상은 풍성한 농업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생계의 보장이라는 해당 사회 성원들의 염원의 투영인 것이다.

농경의 최대 목적은 풍성한 수확이기 때문에 인간의 숭배를 받는 농신은 각종 儀式을 통해 공물을 제공받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받았다. 그중 가장 주된 요구는 바로 농업생산과 직결되는 태양과의 교감과 소통이다. 이를 알 수 있는 직접적 예가 [F5]의 차크물이다. 거의 대부분의 차크물은 그 시선이 올려다보도록 조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출 지점을 향하도록 설치 위치가 지정되기도 하였는데, 비스듬히 태양을 쳐다보는 그의 시선은 犧牲을 품에 받쳐 들고 태양을 향해 무언가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것이 염원하는 바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모두 밝히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앞의 틀라졸테오틀과 소치필리처럼 당시 사람들의 생계, 나아가서는 집단의 영속과 직결되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대한 염원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틀라졸테오틀·소치필리·차크물의 눈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한 존재와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으며, 또한 이들의 시선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늘 혹은 태양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 행위 전 과정의 궤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존재에 대한 숭배는 해당 사회집단의 생산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에너지원에 대한, 그리고 이들의 생존에 직결된 중요한 의식 행위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메조아메리카(Mesoamerica)라는²⁵⁾ 공통의 문화권 내의 공통적 문화요소이자

24) 아스텍인들은 태양의 영속을 위해 인간의 심장과 피를 태양에게 양식으로 제공하였다고 한다(Morton 2008: 167).

25) 메조아메리카란 문화적 측면의 영역 구분으로서 멕시코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중앙아

문화 특질 중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VI. 靑銅縱目人面像의 눈과 시선

눈 및 시선과 관련한 앞의 문자 및 각종 실물자료들의 함의와 인류의 심적 동일성에²⁶⁾ 근거한다면, 이들과 문화영역이 다른 삼성퇴 고촉문화에 속하는 조형물들의 특성과 성질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근거하여 종목상의 눈과 시선의 함의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1. 큰 눈과 돌출된 눈동자

앞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류가 과장의 표현기법으로 형상화 한 절대적 존재의 눈은 종종 신과 소통하는 초인적 도구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삼성퇴 고촉문화의 청동종목인면상도 고촉국 사람들의 바로 그러한 심리가 반영된 예에 속한다.



[F6] 삼성퇴 청동인면상²⁷⁾

메리카에 속하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코스타리카 등 지역의 문화 영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26) 인류의 심적 동일성(psychic unity of mankind)이란 보편적으로 유사한 인류의 기본 사고들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Garbarino 1994: 48), 이것은 역사적·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류의 공통된 심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사진출처 肖平(2005: 76, 36, 37).

종목상에서의 눈도 앞의 [F1]·[F2]·[F3]과 마찬가지로 과장의 수법을 활용하여 특정 존재의 비범한 시각 능력을 형상화 한 결과이다. 특히 [F6]의 b와 c는 삼성퇴에서 발견된 청동인면상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인 [F6]a에 비해 눈 크기의 과장과 눈동자의 돌출이라는 두 가지의 과장적 표현기법을 동시에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점은 앞의 [F1]·[F2]와 대체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종목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돌출된 원통형의 눈동자이다.²⁸⁾ 종목상처럼 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인 눈동자를 입체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예는 중원 문화권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눈동자만 돌출하게 구현하는 것, 즉 종목은 종목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안구의 과도한 돌출이란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는 [F2]c·d와 비교해 볼 때, [F6]b·c의 종목상은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목상에서의 돌출된 눈동자는 무엇보다도 가시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나 조형물과 차별성을 지닌다. 물론 [F2]에서도 돌출된 안구를 표현하고 있지만, [F6]의 b·c는 돌출된 정도가 더욱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시각 능력의 핵심인 눈동자만을 길게 앞으로 돌출시키는 과격적 표현기법으로써 추상적 시선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 및 조형물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종목상은 조형물 본연의 표현상 한계를 극복하고, 돌출된 눈동자으로써 해당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욕망을 대신하여 자신들을 위해 비범한 시각 능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고족국 성원들의 강력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위로 향한 시선

만약 종목상의 종목이 '투시 도법에서 視點과 물체의 각 점을 잇는 직선처럼' 혹은 '의학에서 눈동자의 중심점과 외계의 시점을 연결하는 직선'처럼²⁹⁾ 계속 뻗어나 간다면 그 시선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일까?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종목상의 제작

28) 일부 논문에서는 이것이 안구질환의 하나라 보고 있지만(曾燕伶 2001), 이것은 특정 문화 현상과 고대 인류의 원시 사유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일 뿐이다.

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시선03'의 제3·제4 의미항.

동기와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고촉문화의 일면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종목상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돌출된 눈동자가 일정한 각도로 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⁰⁾ 기존 연구에서는 비스듬히 위를 향하고 있는 종목의 기울기를 소홀히 하였으나³¹⁾, 앞 장의 예들처럼 인류의 각종 조형물들이 특정의 목적성과 지향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종목의 기울기 역시 지향하는 지점과 관련한 특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의 여러 문자 및 조형물에 나타난 눈과 시선의 분석에 근거해볼 때, 종목상의 종목과 그 시선 역시 고촉국의 당시 사회 생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앞 [F4]·[F5]의 틀라줄테오티·소치필리·차크물의 시선이 하늘 또는 태양을 지향하고 있듯이, 종목상의 시선 또한 이 존재가 만들어졌던 고촉국의 사회적 속성에 바탕을 둔 어떤 지향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연구 결과에 주목한다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종목상의 종목의 내재적 함의,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고촉국의 사회적 속성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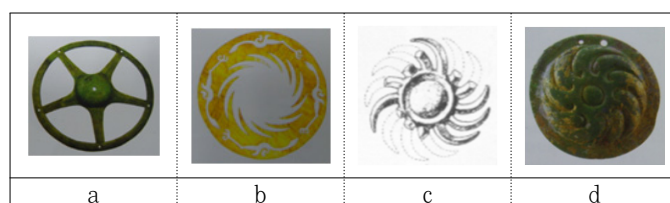
첫째, 종목상이 고촉국의 첫 번째 왕으로서³²⁾ 養蠶을 관장하였던 蠶叢의 형상이라는 것이다(徐學書 1989, 巴家雲 1991 등). 고대인의 정착생활 중 벼농사와 양잠은 전체 생산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고촉국은 이 지역의 기후 특성상 양잠이 매우 중요한 생활 자원 및 생계 수단의 출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기반사업의 마련과 확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이를 수행한 잠총은 그의 사회 계급적 지위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 공헌도에 의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존송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30) 종목상의 종목은 [F2]의 세계 각지의 가면에 비해서도 그 기울기가 뚜렷하다.

31) 李復華·王家祐(2002)와 張福三(2005) 등과 같이 종목상의 눈을 태양의 또 다른 상징으로 보는 연구가 있었으나, 기존 연구에서 종목의 기울기에 대한 심층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32) 《華陽國志校補圖注·卷三·蜀志·二》：“周失紀綱，蜀先稱王，有蜀侯蠶叢，其目縱，始稱王。”

둘째, 종목상을 제작하였던 고촉국은 태양을 사회집단의 절대적 최고 가치를 가지는 숭배 대상의 하나로 여겼다는 사실이다(蔡運章 2007, 劉道軍 2006 등). 고촉국의 삼성퇴·금사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음 [F7]의 태양숭배 관련 각종 유물이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F7] 삼성퇴·금사 출토 태양숭배 관련 유물³³⁾

앞의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자면 종목상의 눈과 시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종목상으로 표현되는 잠총의 종목은 초인적 시각 능력의 표현이며, 이는 잠총의 관장 영역인 양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고촉국의 자연 조건과 기후 특성상 가장 적합한 생산 방식은 양잠으로서, 이는 당시의 중요한 생산 방식의 하나인 농업생산과 그 지위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촉국의 개국 군주로서의 잠총이 정착생활에서 중요한 생업으로서의 양잠을 관장하였다는 것은 고촉국 백성의 생계, 나아가 사회적 富의 창출과 축적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당 사회 성원들에 의해 추앙받았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 신성이 부가되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생업을 개발하고 및 권장하였던 뛰어난 식견이 종목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둘째, 종목의 기울기와 방향은 해당 지역의 태양숭배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앞의 [F4]·[F5]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인들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식 행위, 가령 기우제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모두 태양에 대한 숭배를 포함하고 있는데, 양잠 역시 적합한 기후조건을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에 대한 기원이 필수적

33) a: 三星堆 출토 청동 太陽形器, b: 金沙 출토 太陽神鳥, c: 金沙 출토 청동상의 冠 罩, d: 三星堆 출토 원형 청동 장식(사진출처 a·b·d: 肖平 2005, c: 黃劍華 2005)

이다. 따라서 양잠의 관장자로서의 잠총 역시 태양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양잠의 자연 환경적 기반을 확보하여 백성들이 효율적으로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후대 고촉국 사람들도 [F7]의 의례도구나 상징을 통해 태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염원함과 동시에, 잠총의 화신인 종목상을 눈의 크기와 눈동자의 과도한 돌출이라는 과장의 기법으로 표현하고, 또한 종목의 기울기를 태양을 지향하도록 제작함으로써 태양과의 소통을 위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고촉국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생산활동, 또 이를 위한 태양 숭배는 고촉국이라는 이 사회집단의 사회속성 중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야 아스텍을 비롯한 고대문명에서 옥수수 재배를 비롯한 기타 생업과 관련하여 태양을 가장 중요한 숭배 대상의 하나로 인식하였던 것처럼, 종목상의 종목과 그 시선 역시 해당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의 생계를 위한 慧眼임과 동시에, 태양을 향하는 물리적·정신적 千里眼으로써 태양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을 保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종목의 아레테(arete)라 할 수 있으며, 종목은 결국 고촉국 성원들의 국가 및 사회적 안녕을 갈망하였던 눈과 시선이었던 것이다.

VII. 餘論 : 고대한자 연구 중 문화인류학 자료 운용의 전제조건

前述에서 살펴보았듯이 종목상은 고촉문화 내의 독특한 문화현상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예술적 기법으로 형상화 된 유물이다. 또한 종목상은 이를 제작하였던 고촉국 성원들의 염원, 즉 고촉국 성원들의 중요한 생업인 양잠의 안정적 지속, 또 이를 위한 하늘, 특히 태양과의 소통 등을 위한 神性을 가진 超人的 존재의 형상인 것이다.

종목상은 앞에서와 같이 독특한 내재적 함의와 商代文化와 구별되는 문화적 차별성이 있음에도 종목상을 포함한 관련 유물들을 商代文字의 造字本義와 직결시키는 것은 종목상의 함의를 단순화 시키고, 고촉문화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대한자 연구에 객관적 참조자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고대한자

연구의 과학성을 결여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써 문화유형을 달리하는 相對문화를 특정 문화의 일부나 이류로 보는 것은 문화우월주의의 관점이라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문화인류학 자료를 운용하여 고대한자의 형체 및 의미와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은 고대한자 연구방법론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앞의 예처럼 해당 문화의 문화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한자 初文의 형체와 관련성을 가진다 하여 이를 건강부회하는 것은 해당 한자 연구에 잘못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形義 분석 상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한자 연구에서 문화인류학 자료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다른 문화영역 관련 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인류의 심적 동일성에 착안하되 해당 문화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자료의 운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둘째, 고대문화 유물이나 문자에 반영된 원시사유에 근거하여 특정 문화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자료는 단순히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어서 해당 문자의 조자본의 규명에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고대한자 연구에 참고 가치가 높은 문화인류학 자료를 특정 지역이나 문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대문자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論語》,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

《周禮》, 《十三經注疏》, 藝文印書館.

[晉]常璩, 任乃强 校注, 《華陽國志校補圖注》, 上海古籍出版社.

박석홍 2008, 〈한자형체 기원 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中語中文學》 제42집.

하회세계탈박물관 2011, 《탈》, 헵타출판사.

李智慧 1993, 〈三星堆·巫文化·夏文化〉: 《文史雜誌》, 1993年 第1期.

郭勝强 2004, 〈蜀與殷商關係芻論-從甲骨文記載談起〉: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 版)》2004年 7月.
- 劉道軍 2006, 〈從三星堆青銅神樹到金沙太陽神鳥〉;《重慶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6年 第5期.
- 碧 蓮 2011, 〈李永治水與二郎神〉;《文史雜誌》2011年 第1期.
- 徐學書 1989, 〈關於三星堆出土青銅人面像之探討〉;《四川文物》(廣漢三星堆遺址研究專輯).
- 楊冬連 2010, 〈歷代注疏家視域下的方相氏原型意義流變〉;《四川民族學院學報》2010年 第1期.
- 李復華·王家祐 2002, 〈三星堆宗教內涵試探〉;《四川文物》2002年 第1期.
- 張福三 2005, 〈太陽崇拜與異形眼睛—從廣漢三星堆青銅器發掘說起〉;《民族藝術研究》2005年 第4期.
- 周 斌 2005,《東巴文異體字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
- 周清泉 2003a, 〈釋“蜀”、“叟”:三星堆柱目人銅面像的解謎(上)〉;《成都大學學報(社科版)》2003年 第2期.
- 周清泉 2003b, 〈三星堆柱目人銅面像的解謎(下)〉;《成都大學學報(社科版)》2003年 第3期.
- 曾燕伶 2001, 〈我看三星堆先民的眼睛〉;《文史雜誌》2001年 第3期.
- 蔡運章 2007, 〈三星堆文化的太陽神崇拜〉;《中華文化論壇》2007年 第2期.
- 肖 平 2005,《三星堆—青銅之光照耀世界》,成都時代出版社.
- 巴家云 1991, 〈三星堆遺址青銅“縱目”人面象研究—兼和范小平同志商榷〉;《四川文物》1991年 第2期.
- 何 靖 2001, 〈商代文字來源缺失環節的域外覓踪〉;《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1年 第4期.
- 向桃初 2005, 〈三星堆文化的形成與夏人西遷〉;《江漢考古》2005年 第1期.
- 胡小偉 2003, 〈宋代的二郎神崇拜〉;《世界宗教研究》2003年 第2期.
- 黃劍華 2001, 〈三星堆文明與中原文明的關係〉;《中原文物》2001年 第4期.
- 黃劍華 2005,《金沙考古—太陽神鳥重現》,成都時代出版社.
- 黃永林 2004, 〈三星堆青銅直目人面像的歷史文化意義研究〉;《武漢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4年 第5期.
- Chris Morton·Ceri Louise Thomas 2008,《크리스털 해골의 비밀》,유영 譯,크림 슌.
- Davide Domenici 2007,《아스텍-고대문명의 역사와 보물》,김원옥 譯,생각의 나무.
- John S. Henderson 1999,《마야문명》,이남규 譯,기린원.
- Julie L. Horan 1997,《1.5평의 문명사》,남경태 譯,푸른숲.

- Karl A. Taube 1998, 《아즈텍과 마야 신화》, 이용균·천효경 譯, 범우사.
Kenneth C. Davis 2008, 《세계의 모든 신화》, 푸른숲, 2008.
Maria Longhena 2004, 《마야문명-마야,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 강대은 譯, 생각의 나무
M. S. Garbarino 1994, 《문화인류학의 역사》, 한경구·임봉길 譯, 일조각.
인터넷 자료: www.korean.go.kr, www.emuseum.jp, www.maya-aztec.com,
www.latinamericanstudies.org

【中文提要】

三星堆古蜀文化遺址發現於中國四川省廣漢市郊區。在此發現的各種多樣的遺物，與在中原文化地區發現的文物相比具有頗為獨特、神奇的特徵。因此三星堆古蜀文化遺址發掘以來，考古、歷史、古代文化等有關學界學人經過各自多方面的不斷研究，在各方面拿出了有意義的研究成果。

本文特別注重青銅縱目人面像的“縱目”，就根據古文字學、文化學、文化人類學的理論，還利用甲骨文、金文、納西東巴文等各種文字材料以及世界各地文化遺址中的實物材料，對“縱目”的文化含義進行了較為細緻的分析，並提出了在古代漢字研究中利用文化材料的基本方法與前提條件。

【主題語】

古蜀文化, 三星堆, 縱目, 人面像, 文字研究方法論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